

4/4(월) 왕상 1-2장 다 된 것처럼 보여도

국가 지도자인 왕의 건강은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입니다.

신하들은 노쇠한 다윗 왕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

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데려왔습니다(1:1-4).

<다음 왕은 누구인가? > 또한 자연스런 관심사였습니다.

왕위 계승의 룰이 명확치 않았던 때라 각각의 셈법도 달랐습니다.

아도니야 측은 서열을, 솔로몬 측은 왕의 선택권을 중시했습니다.

아도니야가 많은 형제들 중 유독 솔로몬을 배제한 것은(1:19),

이미 왕실 내에 양강 구도가 확립된 연유였을 것입니다.

사실 아도니야가 <다 된 것처럼> 보였습니다(2:15).

다윗의 총애로나 나이, 외모 등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(삼하3:4).

군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야 편에 섰습니다.

솔로몬과 몇몇 측근을 제외한 모든 왕자, 신하들도 아도니야 편입니다(1:19).

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였습니다(2:15).

솔로몬에게는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.

밧세바는 정략결혼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향했던 여인입니다(삼하11:2-3).

나단은 목숨을 내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입니다(삼하12:7).

두 사람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(1:11-31).

그러나 밧세바와 나단의 지략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.

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<솔로몬>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(3:7).

하나님은 때로 <다 된 것처럼> 보이는 일들 가운데

그분의 반전을 보이십니다.

내게도 <다 된 것처럼>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?

❶ 당연히 내가(내 생각대로) 될 것이라 여기며 자만(자신)한 경험이 있습니까?

❷ <결국 그렇게 될거야> 단정하며 미루어 절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?

(통념, 관습, 관례, 선례, 제도 등)

시작기도 + 통독 왕상 1-2장